

베트남

◆ 베트남, 통신설비 시장에 외국 정보통신업계 관심고조

최근 베트남 정부의 위성발사 및 정보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삭감에 반포된 이래 베트남의 통신설비 시장이 외국 정보통신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도 최근 조사를 통해 베트남의 통신시장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시장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베트남은 세계 유망 통신시장 5위 내에 5년 연속 랭크되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신산업 장기 발전계획 마련

이와 같은 베트남 통신시장의 비약적인 발전은 베트남 정부의 도이모이(doi moi) 정책, 즉 개혁정책과 관련이 깊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통신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의 5대 사업목표를 발표하였다. 첫째,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베트남 우정통신사의 독점을 2005년까지 폐지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 둘째, 모든 경제분야의 통신산업과 정보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적극 유도한다. 셋째, 전국을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망을 건설한다. 넷째, 현재 5%에 불과한 전화 보급률을 2010년까지 25%로 끌어올리며,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 1,800MHz급 GSM<sup>1)</sup>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대학과 연구소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월 인터넷 사업자(ISP)를 추가로 허가했으며, 이로써 인터넷 서비스 공급회사는 총 8개로 늘어난 바 있다.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 수를 현재의 20만 명에서 2005년까지 400만 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통신시장 발전계획에 따라

---

1) Global System for Mobile

〈표〉 베트남 통신 설비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sup>주)</sup>
수입시장		412.5	490.8	589.0
국내생산		168.7	200.8	281.0
수출		10.8	12.7	19.0
계		592.0	704.3	889.0

주: 추정치

자료: www.usatrade.gov.

현재 약 9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베트남 통신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통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협력계약을 맺어 기술과 설비를 제공하고 경영은 지역 사업자에 맡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통신산업 성장은 값싼 노동력보다는 대규모의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좀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의 경영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위성 발사와 정보고속도로망 건설로 통신설비 시장 활성화 전망

베트남의 통신산업 개발정책이 앞으로 위성발사 및 해저 광케이블을 이용한 정보고속도로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 확대방안의 모색은 장기적인 통신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은 늦어도 2005년 초까지 최초의 자체 통신위성인 Vinasat을 발사하여 2005년 중반에 위성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현재 태국 등으로부터 위성을 임대하고 있는 베트남은 자체 위성서비스 실시로 연간 1,000만 달러 이상

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의 이 같은 위성발사 계획은 지상기 지국 건설과 설비시설을 포함하여 약 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위성통신업체들이 베트남 우정통신사와 접촉하였으며, 3개 국제 위성전화사가 이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시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이용하여 베트남 남·북을 잇는 해저 광케이블 건설공사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로써 65만 명의 인터넷 가입자를 추가로 확보하고 베트남 국내의 통신설비 제조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국내 통신설비 제조수준은 아직까지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해, 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프랑스, 스웨덴 등이 주요 수입 대상국이며, 그 가운데 스웨덴의 에릭슨, 프랑스의 알카텔, 독일의 지멘스 등이 통신시장 자유화 조치에 따라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베트남 통신산업의 시장경쟁이 치열한 것은 아니나, 지난해 말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비준 및 발효를 계기로 미국계 정보통신 업체

의 본격적인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베트남 통신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외국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한국통신이 시스코(Cisco) 등의 경쟁사를 물리치고 베트남 최초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건설 사업 계약을 베트남 우정통신사와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통신은 2002년 중 베트남 최초로 ADSL<sup>2)</sup>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보다 앞서 한국의 3개 기업이 합작 설립한 SDL Telecom은 베트남의 Saigon Postel과 공동으로 CDMA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실시키로 하여, GSM 방식이 지배적인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e-ASEAN 기본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 협정의 목적은 아세안의 공동 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이 전자상거래와 정보기술 혁신이 제공하는 기회를 적절히 활용코자 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지난해 7월 아세안의 통신설비에 관한 상호승인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on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n ASEAN)에 가입하였으며, 곧 APEC 통신협정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鄭顯唱】